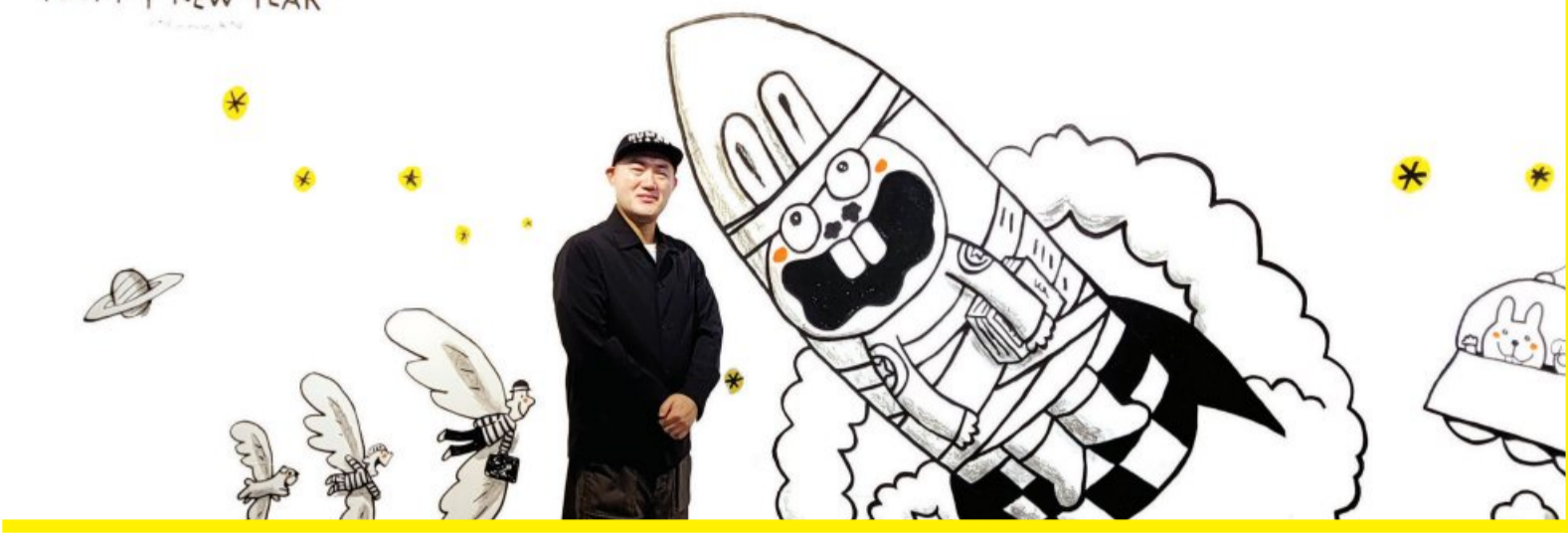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 황중환 작가의 벽화작품 '우주토키'(부분).



# 작품 속 주인공이 되는 '마법의 순간'

황중환 작가 작품 속 주인공은 늘 웃고 있다. 사람과 동물, 그릇과 스펀 등 사물도 모두 스마일이다. 함께 빙그레 미소 짓는 건 자연스러운 일. 긍정의 에너지를 얻고, 위로를 받는다.

내가 그림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 이야기 속 상황에 나를 대입해 보는 것, 작품 감상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다. 황 작가의 그림은 '내 안에서 작품이 완성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작품 속 주인공처럼 '인생지도' 앞에서 '다 여행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이제 막 모험을 떠나는 소년의 용맹을 마음에 담아도 보는 것이다. 작품 '갈'처럼 시원하게 뚫린 신작로 대신, 돌고 돌아가야 하는 구불구불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미지의 순간'을 기대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다.

카투니스트 황중환 작가 초대전이 오는 3월 19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주제는 '마법의 순간(A Miracle Moment)'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다. 한 컷의 카툰과 회화작품이 전하는 따뜻한 마음



'갈'

카투니스트 황중환 초대전  
3월19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코엘료와 작업한 삽화 등 전시  
18일 백화점 문화센터서 특강

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넓은 갤러리 벽에 벽화 형식으로 직접 그린 작품들은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다.

홍익대 시각디자인학과를 거쳐 광고회사에 근무하고 카투니스트로 활동했던 그는 10여년 전부터는 조선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일간 신문 카투니스트였던 그는 13여년간 3015여편의 '삼팔육씨386c' 이야기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풀어냈다. 아침에 신문을 받아든 이들에게 행복한 이야기를 건네지는 다짐은 그의 작품의 토대가 됐다.

그가 파울로 코엘료와 함께 펴낸 '마법의 순간'은 중국, 일본, 대만에서도 출간되는 등 베스트셀러가 됐다. 또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당신이 희망입니다',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아픔을 돌보지 않는 나에게' 등을 펴냈으며 그의 카툰 25점은 초중고 교과서에도 실렸다. 유니세프 놀이터 프로젝트 등에 사용된 작품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계묘년 토끼해를 맞아 갤러리 벽면에 제작한 대형 벽화 '우주토키'는 황 작가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형 작업중인 '12간지' 연작 중 한 편이다.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는 토끼와 날개를 달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지구의 사람들과 강아지 등이 눈길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기운데로 걸어가라'

을 끈다.

책 '마법의 순간'에 등장했던 '운명을 당겨라'와 '웃는식탁',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 삽화 '나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 등도 선보인다.

작가는 '삶이란 날마다 떠나는 여행'이기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몰라 두근거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고개 숙인 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하고, '우리 봄이 오면 날리 뛰어보자'고 격려하며 '함께' 하자고 다독인다.

이번 개인전은 황 작가가 '또 다른 도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간결한 펜선으로 작업했던 황 작가는 이번엔 아크릴 회화 작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작품을 시도했다. 대작 '모험', '갈' 등이 그 출발점이다.

황 작가는 "학교 일로 바쁜지는 하지만 그 역시 작가로서 일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회화 작품과 함께 벽화 작업, 조각, 설치 등 확장된 작업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황 작가는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 광주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특강 '만화가가 들려주는 지금 꿈꾸라 사랑하라 행복하라'를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유아·소외계층 미디어교육 17일까지 지원사업 공모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가 '2023 유아·소외계층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유아, 노인·장애인의 미디어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며 다문화·경력단절여성·소외지역민 등 기타 취약계층이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유아 미디어교육 (5개), 노인·장애인 미디어 교육 (6개),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6개) 등이며 총 17개 기관과 단체를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유아 교육의 경우 놀이형 미디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총 8차시(16시간) 내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강사진이 직접 출강해 유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장애인 교육은 노인·장애인 비영리 단체, 기관, 모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미디어 이해와 콘텐츠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외계층 미디어 교육은 다문화, 경력단절여성, 농산어촌 지역민 등 미디어 취약 계층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기관별 10차시(20시간) 내외의 교육이 준비돼 있으며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17일까지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유아:seo@kcmf.or.kr / 소외: sokurov@kcmf.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50-0324. /김다인 기자 kdi@

## 피아니스트 조성진, 6번째 정규앨범 발매

'헨델 프로젝트'...온라인 스트리밍도 공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년여 만에 정규앨범 '헨델 프로젝트' (The Handel Project·사진)를 도이치그라모폰(DG) 레이블에서 3일 발매했다고 DG의 모기업인 유니버설뮤직이 밝혔다.

이번 앨범은 2021년 DG에서 발매한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 스펀데르'에 이은 여섯 번째 정규 앨범이다.

조성진은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헨델의 작품들을 이번 '헨델 프로젝트' 앨범에서 선보인다. 이 음반에는 1720년 런던에서 처음 출판된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2권 중에서 조성진이 가장 아끼는 세 곡이 수록됐다. 조성진이 선택한 세 곡은 '모음곡 2번 F 장조 HWV 427'로 시작해 '8번 F 단조 HWV 433', '5번 E 장조 모음곡 5번 HWV 430'으로 이어진다.

그는 "비록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이 현대의 피아니스트들에게 많이 연주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 이 작품들을 발견하고는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깨달았다"며 "10대 때부터 헨델, 라모, 쿠프랭과 같은 바로크 작곡가들에게 관심을 가졌기에 드디어 이번 앨범을 녹음하게 돼 무척 기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헨델 하프시코드 모음곡들과 더불어 조성진이 '가장 완벽한 변주곡'이라고 생각하는 브람스의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도 담았다.

이번 앨범의 끝에는 1733년 출판된 헨델 약보집에 있는 두 개의 약조도 들어있다. 'B 플랫 장조 사리방드 HWV 440/3'와 빌헬름 쾰프 편곡 버전의 '마뉴에트 G 단조'다.

5일 도이치그라모폰 스테이지 플러스(DG Stage+)에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공개됐다. /연합뉴스

## 두 손 모아 '김은희의 소망화'

1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화순 운주사에 들렀을 때 작가는 마치 다른 시간에 머무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주풍경을 담은 '마주하다' 시리즈가 코로나로 멈춰버린 시점이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석불을 바라보던 그는 합장하는 수인(手印)에 마음을 빼앗겼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형상에서 그 간절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서양화가 김은희 작가 개인전이 오는 1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김은희의 소망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독특한 전시 공간인 아트폴리곤의 장점을 살려 색채를 바탕으로 한 세계의 색선으로 구성했다. 각각 파란색, 노란색 작품으로 공간을 꾸렸고 석불의 구상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따로 배치했다.

'소망화' 시리즈는 투박한 토속적 이미지와 해학미를 갖고 있는 석불의 합장하는 형상에서 영감을 얻었다. 또 저고리 배래의 곡선이 갖고 있는 부드러움도 차용했다.

수묵의 번짐 효과 느낌도 나는 작품은 은은한 매력을 선사하며 단색 회화가 주는 소박한 느낌도 함께 전달된다.

작가는 "손을 모은다는 건 짐에서 우리나라는 간절함의 반응"이라며 "운주사의 천불천탑과 와불을 만든 그분들의 간절한 염원에 공감하며 붓자국을 천 번 또 천 번 쌓아올려 작업했다"고 말했다.

전시 연계 이벤트로 '소망지 달기'도 진행한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동 대학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김작가는 '나의 꿈', '하늘 사이' 등을 주



'구름이 머무는 곳'

제로 세차레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국민뮤지컬 '광주', 광주 배우 대상 오디션



2022년도 진행된 뮤지컬 '광주' 공연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뮤지컬 '광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봐야 할 국민뮤지컬'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지난 2020년 서울 대학로 흥익아트센터에서 초연한 이후 광주 외에도 고양, 부산, 전주 등 공연 1만3000여 명 관객이 관람했다.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의 대상, 앙상블상, 안무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등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뮤지컬 '광주'가 올해 네 번째 시즌 공연을 앞두고 광주 배우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한다.

지원 기본 자격은 광주광역시 거주자 또는 출생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여야 한다. 또한 춤과 노래와 연기가 가능

한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로, 타 공연 연습이나 공연의 동시 진행은 불가하다.

지원 희망자는 문화재단과 ㈜라이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오는 19일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배우들은 '장삼년' 배역을 비롯해 남·여 '광주시민' 역할을 맡게 되며 오는 4월 17일~5월 15일까지 서울 정동 경향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오디션 합격자에 한해 서울연습 숙식과 연습비, 공연 출연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공연은 오는 5월 16일~21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로나 이후, 인간관계·대화 도서들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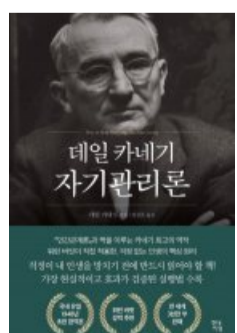
에스24 집계

코로나19와 그 이후 일상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엔데믹 시기까지 우리 일상 속에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잡은 화두는 '관계'였다. 이를 반영하듯 인간관계·대화 등 관련 분야 도서들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에스24가 관련 도서 흐름 및 베스트셀러를 바탕으로 집계한 결과 드러났다.

에스24는 '인간관계' 분야 도서는 2019년 판매가 감소하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37.9%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3년간 판매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30 독자층의 호응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이들에게 인간관계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위 카테고리인 '자기계발' 분야 도서 전체 구매자 중 2022년 2030 구매자 비중은 34.3%였는데, 같은 해 '인간관계' 분야 도서 2030



구매자 비중이 37.9%로 소폭 높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인간관계 분야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스테디셀러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이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랑을 설득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1936년 출간 이후 전 세계 60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인간관계 비법서로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은 인간관계를 비롯한 문제의 주원인인 '격장'을 펼쳐내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돕는 카네기의 조언을 담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